주제: 생활 속 로봇의 등장

기사 요약: 미국 샌프란 시스코의 한 쇼핑센터에 로봇 바리스타가 등장했다.

카페X는 자동화된 커피 머신 2대로 분당 1~4잔의 커피를 만든다.

업무량은 주문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는데, 업체가 별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이나 카페에 마련된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된다. 주문 후에 4자리 코드를 받게 되는데 커피를 받을 떄 이 숫자로 자신의 주문을 확인할 수 있다.

이 카페X의 CEO 헨리 후는 커피 구매 방식에는평범한 맛의 커피를 주문 즉시 받거나, 15분을 기다려 매우 훌륭한 카푸치노를 마시는 2가지 가 있다며, 이 두 요소를 적당히 합쳐 사람들이 맛있는 커피를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카페 X를 개발했다고 전했다.

🡪 커피를 즐기는 일상에서도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IT의 생활침투를 엿 볼 수 있었다.

🡪 <http://www.itworld.co.kr/t/65212/%EB%AF%B8%EB%9E%98%EA%B8%B0%EC%88%A0/103300>